

전기(傳記)에 나타난 Samuel Johnson의 문학관

김 번

1.

Samuel Johnson(1709~1784)은 *Life of Cowley*에서 천재를 “a mind of large general powers, accidentally determined to some particular direction”¹⁾으로 정의했다. 자신의 경험적 사실과 연관되는 경우 흔히 그렇듯이 이 정의도 단순한 일반론으로서 보다는 자신에 대한 해명으로 새겨 들을 때 그 의미가 한결 돋보일 뿐 아니라 나아가 Johnson과 그의 문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Johnson의 문학활동 연보를 살펴보면 천재에 대한 위의 정의가 그 자신에게 고스란히 들어맞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활동영역은 문학의 모든 분야를 섭렵했다고 할 정도로 광범위했다. 詩, 비평, 사전편찬, 정기간행 에세이, 전기 등의 분야에서 자기 그 방면의 우뚝한 봉우리가 될 성취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극작에도 손을 댄 적이 있고 *Rasselas*와 같은 소설에 가까운 작품을 쓰기도 했다. 확실히 그의 재능은 이처럼 다방면에 걸쳐 발휘된 ‘크고 일반적인’ 것이었는데, 그것이 ‘우연히’ 어느 특정한 방면, ‘방향’으로 집중, ‘결집되는’(determined) 곳은 바로 전기였다고 판단된다.

Johnson이 전기에 인연을 맺고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확실히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졌다. London에 온 후 *The Gentleman's Magazine*이란 잡지에 밥벌이 글을 쓰던 무렵 그는 모두 8편의 짧은 전기를 1738년에서 1742년 사이에 썼는데, 그것은 전기의 효용이나 중요성 또는 전기쓰기의 문체를 뚜렷이 인식한데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다. 8편의 전기——오늘 날에는 거의 기억되지 않는 군인, 의사, 학자, 과학자에 관한——은 모두 다른 전거(source)나 전기로부터 그대로 번역하거나 군데군데 개역한 것이었다.²⁾

이러한 경험을 통해 Johnson이 전기라는 장르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으리라고 충분히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2년 만에 그가 전기쓰기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는 *Life of Savage*(1744)를 발표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Life of Savage*의 놀라운 점은 천재에 대한 정의에서 보듯 Johnson의 천재적 재능이 그 가장 적합한 영역을 우연히 그리고 갑작스럽게 ‘발전’³⁾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은 점진적인 준비나 발전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전기의 중요성, 전기쓰기의 원리들에 대한 그의 이론적 설명이 *Rambler*(1750~2)와 *Idler*(1758~60)에 이르러서야 개진됨은 이와 같은 생각을 뒷받침한다.

1) Frank Brady and W.K. Wimsatt eds., *Samuel Johnson: Selected Poetry and Prose* (London: Univ. of California Press, 1977), p.338. 앞으로 S. Johnson의 저작에 대한 인용시 말리 따지지 않을 경우 이 책의 페이지 숫자만 표시함.

2) Walter Jackson Bate, *Samuel Johnson* (London: Hogarth Press, 1984), pp.218-9 참조.

3) W.J. Bate, p.218.

전기가 자신의 재능에 가장 적합함을 Johnson 자신 물론 잘 알고 있었다. 그는 “.....the biographical part of literature, which is what I love most”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그에게 전기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그의 천재에 잘 어울리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거기서 더 나아가 그것이 그의 문학관의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전기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많은 대목 가운데 특히 다음의 것을 살펴보자.

Those parallel circumstances and kindred images, to which we readily conform our minds, are, above all other writings, to be found in narratives of the lives of particular persons; and therefore no species of writing seems more worthy of cultivation than biography, since none can be more delightful or more useful, none can more certainly enchain the heart by irresistible interest, or more widely diffuse instruction to every diversity of condition. (Rambler 60, p. 182)

이 하나의 단락에는 Johnson이 문학에 대해 가졌던 생각의 대강(문학이 즐거움과 함께 가르침을 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독자의 생활과 근사한 삶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이 적시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학의 소임을 수행하는 데는 다른 어떤 장르보다 전기가 우월하다는 것이다.

Johnson의 재능과 문학관이 전기에 가장 잘 구현되어 있다면 한편으로 약점이나 한계 또한 한 거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의 특장은 동시에 한계로도 작용할 만큼 적극적인(positive) 성격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점검은 본고의 주안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듯 전기가 Johnson의 문학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지만 그는 *Life of Savage* 이후 오랫동안 주목에 값하는 전기를 쓰지 못했다. 그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1777년 만년의 나이에 그가 일단의 출판업자들의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여 52명에 달하는 시인들의 전기를 쓰는 데 정력적으로 임한 것은 이 저작으로 자신의 문학을 결산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평가는 간략하나마 *Lives of the Poets*의 의의를 적절하게 표현함과 아울러 전기가 언제나 Johnson의 중심되는 영역이었음을 확연케 한다.

The whole course of his life and studies had been an admirable preparation for this task of biography.....⁵⁾

이상에서 Johnson에게 전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본문에서는 그의 전기작품이 내보이는 특징들과 결함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문학관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Life of Savage*를 읽으면서 Johnson이 삶을 어떻게 이해하며, 그 이해가 문학에 여하히 수용되는가를 선명하게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거기서 드러난 삶과 문학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까지 타당하며 바람직한가를 가늠하기 위해 *Lives of the Poets* 중 *Life of Swift*와 *Life of Milton*을 그에 대비시켜 읽어보려 한다. 이 과정에서 Johnson문학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면면들이 그 결함·한계와 나란히 놓여 고찰되고, 따라서 Johnson의 문학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많은 시인전 가운데 특

4) James Boswell, *Life of Johnson* (1791: rpt. Oxford: Oxford Univ. Press, 1983), p. 301.

5) Walter Raleigh, *Six Essays on Johnson* (Oxford: Clarendon Press, 1910), p. 128.

히 위의 두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있다. 두 작품을 연구하는 초점은 Johnson이 전기와 비평을 어떻게 관련지으며 그 관련지음의 방식이 시인과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점에 주어질 것이다.

2.

*Life of Savage*는 *Lives of the Poets* 가운데서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다른 전기보다 약 35년 앞서 씌어졌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해 씌어졌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Johnson은 London에서 밥벌이 글을 쓰던 무렵 것처럼 가난과 무명에 시달리던 처지의 Savage와 함께 고생을 겪으며 우정을 나누었었다. 그리고 *Life of Savage*는 그가 죽고 난 뒤 곧 씌어져 1744년에 완성되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다음의 인용문은 이 전기를 평가할 기준의 하나를 제시한다.

If the biographer writes from personal knowledge, and makes haste to gratify the public curiosity, there is danger lest his interest, his fear, his gratitude, or his tenderness, overpower his fidelity, and tempt him to conceal, if not to invent. (Rambler 60, pp.184-5)

Johnson이 인용문에 나타난 위험을 벗어나는가, 벗어난다면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이 따라서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

*Life of Savage*를 읽고서 친구로서의 정리가 작가로서의 정직성을 압도한다고, 또는 양자가 의도상의 혼선을 빚는다고 생각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Savage에 대해서 한편으로 이해와 공감의 태도가,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과 질책의 태도가 단속적으로 병치되어 나타난다. 더우기 작품의 마지막 두 단락이 꼭 같이 굳건한 어조로 상반되는 이해와 비판의 태도를 내보이기 때문에 독자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혼란이 올 수 있을 것이다.

Savage에 대한 작가의 애정이 문면 가득히 배어있음은 어렵지 않게 감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작가가 Savage의 편으로 나서서 그를 옹호한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작품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읽은 탓이다. 이러한 오류는 Savage에 관한 여타 전기나 Boswell의 *Life of Johnson*에 나타나는 두 사람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서 Savage 곁에 항상 Johnson의 모습을 나란히 놓고 보려는 선입견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두 사람이 함께 London의 어두운 골목을 헤매면서 서로의 이상과 처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기억하는 독자는 그런 감동적일 장면이 작품 속에 나타나지 않는 데 대해 의아해 할지도 모른다. 사실 그러한 장면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 Savage 혼자서 거리를 헤매고 길가의 허름한 집이나 공장의 꺼져버린 불더미 곁에서 거지, 도둑과 함께 잠잔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배제하려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작가는 작품 속에 자신의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 화자를 지칭하는 "I"가 10여회 쓰이고 있지만 그것은 자료에 대한 작가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일 뿐 Savage 곁에 선 친구가 아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모습을 지우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러한 의도와 문면 가득히 배어있는 작가의 애정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서로를 거역하는 듯한 이 두 가지 특징을 연결지어 해명함에 있어 다음의 인용문은 좋은 실마리가 된다.

Full of these salutary resolutions, he left London in July 1739, having taken leave with great tenderness of his friends, and parted from the author of this narrative with tears in his eyes. (p. 615)

위의 대목은 작중에서 작가와 Savage가 자리를 함께 하는 유일한 장면인데, 그 유일한 장면으로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별하는 순간이 포착되어 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장면은 매우 간결하게 서술되어 있다. 헤어질 때 실제로는 몇 마디 주고 받은 말이 없지 않았을 터인데도 작가는 자신의 육성을 실지 않는 것이다. Savage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한껏 표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에 작가가 오히려 애써 절제하려 함을 알 수 있다.

작가의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은 분명 개인적인 친분으로 전기를 쓸 때 수반되기 쉬운 위험들을 벗어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의 입장은 Savage와 관계되는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사건과 일화들을 다시 독자의 기억에 떠오르게 함으로써 생전의 Savage를 추념하자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한 태도야말로 Johnson이 질타해 마지 않는 것이었다. 작가가 절친한 벗에 대한 추념의 좋은 기회들을 마다하고 쫓는 것은 한 인물의 삶에 대해 정당한 도덕적 평가를 내리는 일이다. 이 작업을 위해서 그는 일차적으로 친구와의 연분을 끊으려 애쓰는 것이다. 이별의 장면에서 Savage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 고였지만 작가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반응이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장면은 작가와 Savage의 일차적 절연을 잘 보여준다. 달리 말해 작가는 experiential "I"와 judging "I"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절연된 공간에서 작가는 엄정한 판관(judge)의 입장을 취한다. 작가와 Savage는 동고동락하던 친구의 처지로 동렬에 서는 것이 아니고 마치 법정에서의 재판석과 피고인석과 같은 위치에 선다. just, justice, justly와 같은 낱말이 전편에 걸쳐 20회 가까이 사용되고 있음이 이러한 판계를 잘 나타낸다. 그러면 Savage에 관한 판결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 보자.

It is not indeed unlikely that Savage might by his imprudence expose himself to the malice of a talebearer; for his patron had many follies, which, as his discernment easily discovered, his imagination might sometimes incite him to mention too ludicrously. A little knowledge of the world is sufficient to discover that such weakness is very common, and that there are few who do not sometimes, in the wantonness of thoughtless mirth, or the heat of transient resentment, speak of their friends and benefactors with levity and contempt, though in their cooler moments they want neither sense of their kindness nor reverence for their virtue. The fault therefore of Mr. Savage was rather negligence than ingratitude; but Sir Richard must likewise be acquitted of severity, for who is there that can patiently bear contempt from one whom he has relieved and supported, whose establishment he has labored and whose interest he has promoted? (p. 568)

Savage와 그의 후원자인 Steele 사이의 불화에 대해 논급하는 인용문에서 작가는 소송이 붙은 두 당사자에게 판결을 내리는 판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먼저 그는 not unlikely, such weakness is very common, transient resentment 등의 표현을 쓰면서 Savage가 Steele의 우행을 발설한 행위가 배은망덕이라기 보다 태만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결함으로써 그의 혐의를 풀어준다. 이 판결은 Savage쪽을 감싸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Savage에 대한 논고에서 his patron had many follies, a little knowledge of the

world is sufficient.....라고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Steele쪽에 유죄판결이 내려질 것 같은데, 곧 이어 작가가 but Sir Richard Steele must likewise be acquitted..... 라고 말하면서 결국 양쪽의 혐의를 모두 풀어준다는 점이다.

이러한 판결이 올바른가 또는 부당한가 하는 것을 문제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수고한 만큼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라 하겠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판결이 어떻게 해서 도출될 수 있으며 또 어떠한 판단방식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 따스한 은혜를 입은 Savage가 배은망덕으로 보일 수도 있는 행위를 한 것이나 자애로운 아버지를 자처했던 Steele이 그 행위에 분노를 느끼고 Savage를 모질게도 내쫓는 것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자연스럽지 못한 행위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모두 무죄로 방면하는 것은 양자의 행위를 정작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불가항력을 감안하기 때문이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로 대표되는 가정을 잃고 이후 줄곧 여러 후원자나 독지가의 도움으로 떠돌이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Savage의 운명이 그와 관계된 사건들에 부자연스런 멜로드라마의 분위기를 강하게 드리운다. 배우는 쪽의 자애와 받는 쪽의 감사로 시작되는 일견 조화롭고 행복한 관계는 언제라도 불씨만 닿으면 정반대의 모습인 배은망덕에 대한 분노와 얽혀 사는 자의 억눌린 불만과 오만함으로 표변할 수 있는 것이다. Steele과의 사건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the malice of a talebearer라는 불씨(매개적 힘)가 덧붙여졌던 것이다.

운명적 상황과 매개적 힘이 개인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불가해하고 불가항력적인 작용을 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쪽의 행위는 모두 있을 수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작가는 어느 쪽도 꼬집어 타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양쪽을 모두 감싸안은 것은 무원칙한 온정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불행한 사건을 단순히 특정한 개인의 문제적 사례로 치부하지 않고 인간의 본성과 삶의 조건이라는 드넓은 바탕에 비추어 성찰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판단의 방식이야말로 전기작가로서 Johnson이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며 *Life of Savage*를 전기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작품으로 끌어올리는 힘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점은 우리가 한 인물 혹은 하나의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것(the particular)과 일반적인 것(the general)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이냐 혹은 양자를 어떻게 조합해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Johnson 나름의 해답에 직결된다.

If now and then they condescend to inform the world of particular facts, they are not always so happy as to select the most important. (Rambler 60, p.184)

인용문에서 Johnson은 종래의 전기작가들이 한 인물을 파악하는 데 꼭 필요하고 중요한 세부사항을 제시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그렇다면 Johnson 자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일까? 일례로 그는 Steele의 성격에 관해 a very just idea를 제공하기에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면서 주제인물도 아닌 그에 관한 장황한 일화를 옮겨 적기도 한다. 더욱 적절한 예로 Savage의 성격적 결함을 나열·설명하는 가운데 vanity를 묘사하는 다음의 대목을 들 수 있겠다.

Vanity, the most innocent species of pride, was most frequently predominant: he could not easily leave off when he had once begun to mention himself or his works, nor ever read his verses without stealing his eyes from the page to discover in the faces of his audience how they were affected with any favorite passage. (p. 626)

여기서 he는 물론 Savage이지만 허영에 찬 작가라면 누구라도 대입이 가능할 만큼 이 묘사는 특수하면서도 동시에 일반적이다. 사전편찬자로서의 Johnson을 떠올리고 보면 이 묘사는, 그의 사전에서 vanity라는 항목에 먼저 그 낱말의 뜻이 풀이된 뒤 다음에 그 낱말이 가장 적절하고 올바르게 사용된 예문이 제시되는 양식과 흡사하다는 점에서 자못 흥미롭다. Johnson은 세부사항을 기술함에 있어서도 그것이 한 인물의 독특한 면모를 잘 드러낼 뿐만 아니라 경험 일반에 비추어서도 보편성을 담보하도록 만듦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묘사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특징은 인물의 성격이나 행태를 설명하고 판단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As many more can discover that a man is richer than that he is wiser than themselves, superiority of understanding is not so readily acknowledged as that of condition; nor is that haughtiness which the consciousness of great abilities incites borne with the same submission as the tyranny of wealth; and therefore Savage, by asserting his claim to deference and regard, and by treating those with contempt whom better fortune animated to rebel against him, did not fail to raise a great number of enemies in its different classes of mankind. Those who thought themselves raised above him by the advantages of riches hated him because they found no protection from the petulance of his wit. Those who were esteemed for their writings feared him as a critic and maligned him as a rival; and almost all the smaller wits were his professed enemies. (p. 607)

첫 문장에서 therefore의 앞 부분은 경험의 많은 사례들을 일반화시킨 명제로 “common maxims of life”에 해당한다. 작가는 여기에서 Savage의 경우를 적용시켜 서술한다. 따라서 Savage는 어떤 자연법칙과도 같은 것에 거슬러 행동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며 그 결과로 did not fail to..... 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필연적으로 추락하고 만다.⁶⁾ 그런데 놓쳐서 안 될 사실은 F.R. Leavis가 지적하듯⁷⁾ Johnson의 일반화하는 성향 또는 일반화된 진술이 알맹이가 없이 걸만 번듯한 것이 아니고 넓은 범위의 깊이 체험된 경험을 환기하게끔 촛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그 진술을 대할때 독자가 앞서 vanity서술의 경우에서처럼 구체적 경험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이 점이 Johnson 특유의 힘이기도 하다.

Savage와 Steele의 불화 때처럼 여기에서도 작가는 어느 쪽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단정짓지 않는다. Savage의 거만함과 적들의 격분 이외의 강력한 힘이 이 상황에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독자로 하여금 왜 우월한 정신의 소유자가 많은 재산을 소유한 자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가 하는 회의론을 갖게 만드는 힘이기도하다. 한 인

6) William Vesterman, *The Stylistic Life of Samuel Johnson* (New Jersey: Rutgers Univ. Press, 1977), pp.27-8 참조.

7) F.R. Leavis, “Johnson and Augustanism” in *The Common Pursuit* (1952; rpt. New York: New York Univ. Press, 1964), pp.101-2 참조.

간의 운명적인 삶의 행로에서 이처럼 깊은 비애감이 우리나라오는 것은 작가가 개별적 사실이나 인물을 다루면서도 거기에 몰입하지 않고 언제나 그 아래에 축적된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삶의 일반적인 모습에 대한 깊은 성찰을 깔고 있기 때문이다.

John Wain은 *Life of Savage*가 읽는 이에게 'dark emotional power'를 안겨준다⁸⁾고 했는데, 이러한 힘을 환기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길게 살펴보았듯이 작가가 자신의 모습과 육성을 배제하려고 애쓰고 또 Savage 일개인에 관계되는 사건이나 성격상의 특성을 common experiences of men에 비추어 평가하는 태도와 방법에 의해 가능했다. 그래서 독자는 Savage라는 특수한 개인의 불행했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삶을 둘러싼 조건들(human condition) 속에서 자신의 identity와 설 자리를 찾으려 부대끼며 떠도는 인간의 보편적(universal) 모습(Savage의 시제목처럼 Wanderer의 모습)을 스스로에게 비추며 곱씹어보게 된다.

독자가 느끼는 이러한 공감(sympathy)은, 작가가 Savage를 동정·옹호하는데 몰입하지 않고 오히려 내적 절제의 과정을 거쳐 그를 엄정하게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더욱 은밀하고 깊게 다가온다. 작가가 거의 일관되게 Savage를 "unhappy man"이라고 부르는 것도 공감과 이해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 이름으로 그의 잘못과 결함을 가림하려 하진 않는다. 그를 unhappy man으로 보는 것은, 삶의 즐거움과 타고난 능력의 발휘를 저해하는 부자연스러운 힘이 그의 삶에 상당히 개재되었기 때문이다. Lord Tyrconnel과의 불화 후에 주위사람들은 Savage를 불행한 것이 아니라 범죄적(criminal) 인물로 여겼지만 작가가 여전히 unhappy man이라 부르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Savage에게는 외부로부터 닥쳐온 불행에 못지 않게 스스로 만든 불행도 많다는 사실을 작가는 간과하지 않는다.

The reigning error of his life was that he mistook the love for the practice of virtue, and was indeed not so much a good man as the friend of goodness. (p.594)

작가는 그의 착한 천성과 선행의 의도를 십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천성을 다듬고 계발하여 의도한 바가 실행되도록 하는데 태만했던 그의 허영을 준열하게 지적한다.

*Life of Savage*에는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주제인물에 대한 작가의 여러 가지 미묘하고 복잡한 태도가 함께 자리하면서도 어떠한 혼란이나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것은 앞서도 비쳤듯이 작가가 특정한 일개인을 다루면서도 그의 삶을 보편적인 삶의 조건과 축적된 경험일반에 견주어 파악하기에 가능했다. 그 主調는 절제된 내적 공감이지만 무엇이 이해와 동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 어떤 결함이 용인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점은 분명하게 짚는다. Savage처럼, 또는 그와 함께 눈물젖은 빵을 먹어본 작가만이 두 사람의 이별장면에서처럼 흐르는 눈물로 눈앞이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물은 삼키고 감춘 채 Savage의 눈물어린 눈을 쳐다보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Nothing will supply the want of prejudice, and negligence and irregularity long continued will make knowledge useless, wit ridiculous and genius contemptible. (p.628)

성서에서의 talent의 비유를 상기시키는 이 마지막 대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한 인물을

8) John Wain, *Samuel Johnson*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74), p.110.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 Johnson은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talent)을 능력껏 닦고 갈아 자기 삶의 평정과 기쁨을 얻을 뿐 아니라 그 사회의 삶에 이바지했는가 아닌가에 따라 그를 happy 혹은 unhappy man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Life of Savage*에서는 Johnson이 *Rambler, Idler*의 시기에 항용 거론하는 common reader와 같은 독자를 지칭하는 말이 직접 나타나진 않지만 이 마지막 대목은 그 common reader를 염두에 둔 결론적 교훈이다. 돌이켜 보면 *Life of Savage* 전부가 독자에게 말을 거는, 독자를 향한 글인 것이다. 작가가 Savage와 애써 결별했던 것이 바로 독자와 대면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달리 말해 Savage의 일생을 객관적 자료에 의거해 구축해 독자 앞에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독자와 Savage 사이에 끼어들어 Savage에 대한 특징과 사건들을 작가 나름대로 썬어서 독자에게 건네주는 것이다. 전기의 중요성이 바로 그 교훈적 효용에 있다고 믿는 Johnson에게는 작가의 좌우에 있는 Savage와 common reader 중 굳이 우선 순위를 따지자면 후자에 대한 배려가 더 깊고 컸으리라고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 대목이 힘차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금언과 같이 기억할 만한(memorable) 간결함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도 common reader를 의식한 Johnson의 스타일이라 하겠으며 또 Johnson 자신이 스스로를 common reader의 대변자로 생각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If we owe regard to the memory of the dead, there is yet more respect to be paid to knowledge, to virtue, and to truth. (p.185)

*Rambler*의 한 대목인 위 구절은 바로 *Life of Savage*를 두고 한 말인 것처럼 들린다. 지식, 미덕 그리고 진리는 일반 독자가 보다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인데, 죽은 자에게 보다는 이것에 더 큰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Johnson에게는 위와 같은 태도가 친구도 작가 자신도, 더우기 common reader를 배반하지 않는 길이었다고 생각된다.

3.

*Life of Savage*는 Savage가 시인이자 극작가였지만 전기부분이 압도적인 분량과 비중을 차지하고 비평은 단지 그의 재능을 예시하기 위해 첨가된 듯한 느낌이다. 그래서 *Life of Savage*는 Johnson이 *Lives of the Poets*에서 독특하게 정립한 문학전기(literary biography)의 범주에 들기는 어렵다. 반면에 *Lives of the Poets*에서는 비평이 훨씬 비중있게 다루어져 대체로 전기부분과의 균형을 이룬다고 하겠다. 따라서 *Lives of the Poets*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기부분과 비평부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문학전기라는 형식부터가 그러한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Johnson의 문학관——삶과 문학의 관계——을 이해하는 데에도 관건이 된다.

그런데 Johnson은 이 마지막 대작에 임할 때 문학전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론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다. 알다시피 그는 출판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전기를 써갔던 것이고 그 결과가 문학전기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나타났었다. Johnson이 어떤 이론이나 전제에 입각해서 문학을 논하지 않았던 만큼 문학전기에 대한 이론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그가 삶과 문학을 어떻게 연관지어 파악하는가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criticism

open to nature'라는 언명에서 보듯이 문학에 대한 이론이나 체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비평을 함에 있어 적극적인 미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Lives of the Poets*의 개별 시인전은 대개 전기부분과 작품비평부분의 둘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이에 주제인물의 literary character를 평하는 부분이 간략하게 놓여 있다. 전기부분과 비평부분이 어떻게 연관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전기부분이 비평에 앞서 놓여 있는 것은 막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자가 후자에 연관되고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판단된다.

*Life of Milton*은, Johnson이 Milton을 혐오한 나머지 Milton의 작품을 평가하는데서 적지 않은 편견과 오류를 빚는다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은 시인전이다. 몇몇 평자들은 Johnson을 이러한 비난으로부터 방비하려는 의도로 Johnson이 세심하게 Milton의 삶에 대한 견해와 Milton의 시에 대한 견해를 분리시켜서 다루고 있다⁹⁾거나 아예 전기부분과 비평부분이 상호간에 어떠한 영향관계도 없는 별개일 뿐¹⁰⁾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그렇다면 문학전기라는 형식으로 *Lives of the Poets*가 이룩한 독특한 성취는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물론 Johnson이 시인의 삶에 대한 평가와 작품에 대한 평가를 인과론적으로 연결짓지는 않았지만 Stephen Fix의 지적¹¹⁾처럼 *Life of Milton*의 참된 성취이자 난점이며 또 자극적 매력은 바로 Johnson이 적극적으로 Milton의 삶과 예술을 연결지으려 했음에 있다는 것이 한결 타당하게 보인다.

Johnson은 Milton의 삶을 기술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입수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나열하고 있지 않다. 그는 나름대로 Milton에 대한 지배적인 이미지를 마음 속에 세워 놓고 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Milton의 삶을 서술해 나간다. 그 지배적 이미지는 자신이 common people보다 우월하다는 자의식에서 자신을 남들에게서 또 common life에서 구별지으려는 욕망을 강하게 지닌 Milton의 모습이다. 대학에 다닐 때 Milton에게는 친구가 없었다고 확신한다든지 그의 공화주의가 자유에 대한 사랑보다는 사실은 복종해야 하는 군주와 같은 권위를 지닌 존재를 시기하고 혐오한 데 근거한다고 추측하는 것 등 일상적 삶의 정상적인 행태를 벗어나는 사례로 Johnson이 들고 있는 것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것으로 보아도 Johnson이 Milton에 대해 적대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적대감의 초점은 common people, common humanity, common life 등에서의 'common'이란 낱말에 모아진다. Johnson이 'common'이란 낱말에 신는 무게를 생각하면 그로서는 Milton의 'the desire to be more than common'¹²⁾은 용인하기 어려웠으리란 걸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에게는 Milton이 모든 인간의 공통된 바탕이라 할 common people과 어울려 사는 삶, 즉 common life를 박차고 비상하려는 유아독존의 오만한 인물로 비쳤을 것이다. 그래서 Milton이 맞아들인 여자들은 모두 처녀였는데 그 이유는 그가 두번째 남편이 되는 걸 몹시 꺼렸기 때문이라면서 Johnson 자신이 미망인과 결혼했던 사실에 빚대어 남과 섞이기 싫어하는 Milton을 비아냥거리기도 하지만, 다음의 대목에서는 18세기 풍자의 일반

9) James Boswell, p.162 참조.

10) Leopold Damrosch, *The Uses of Johnson's Criticism* (Charlottesville, Va., 1976), p.137 참조.

11) Stephen Fix, "Johnson on Milton's Life", *Modern Philology* (February, 1984), p.245 참조.

12) Stephen Fix, p.245.

적 양태대로 의기양양하게 솟아오르다 무참하게 추락하고 마는 모습을 보여준다.

But whatever Milton could write, or men of great activity could do, the King was now about to be restored with the irresistible approbation of the people. He was therefore no longer Secretary, and was consequently obliged to quit the house which he held by his office; and proportioning his sense of danger to his opinion of the importance of his writings, thought it convenient to seek some shelter, and hid himself for a time in Bartholomew Close by West Smithfield. (p.408)

Charles I를 처형하고 득의양양했던 Milton이 'common people'의 '거역할 수 없는' 성원 하에 Charles II의 복위가 이루어질 시점에 일신의 안위를 걱정해 도피하는 것을 Johnson은 절대다수의 국민과 단신의 Milton을 극적으로 대비시켜 제시한다.

이상과 같은 식으로 서술된 Milton전기가 여타의 일반적인 Milton전기와 얼마나 다른 것인가 하는 점은 바로 이어지는 다음 대목에서 잘 드러난다.

I cannot but remark a kind of respect, perhaps unconsciously, paid to this great man by his biographers: every house in which he resided is historically mentioned, as if it were an injury to neglect naming any place that he honored by his presence. (p.408)

여타의 전기작가들이 Milton의 위대함을 돋보이게 하려고 마치 Milton이 common people이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영위한 듯이 전기를 쓰는 데 반하여, Johnson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그가 차지하는 지위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일상적 삶의 내용은 위대한 자나 미천한 자를 불문하고 꼭 같이 사소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전기의 중요성이 "level with common life"한 점에 있다고 하고 또 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applicability)을 강조하는 Johnson은 한 인물에게 덧붙은 우연하고 비본질적인 장식을 떼어내고 'the man'을 있는 그대로의 알음으로 제시하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의무로 생각했다. Milton을 비롯한 위대한 시인들의 사소한 결함들을 자질구레하게 들추어 내는 것 같은 Johnson의 태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Milton의 시를 평하는 순서로 읊아갈 때 Johnson은 Milton 'the man'에 대한 지배적 이미지를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Milton의 시를 해명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로 사용한다고 판단된다. Johnson은 *Comus*나 *Samson Agonistes*가 시로서 볼 때는 매우 탁월하다고 평가를 내리면서도 drama로선 성공적이지 못하다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는 것이다.

.....he knew human nature only in the gross, and had never studied the shades of character, nor the combinations of concurring or the perplexity of contending passions. He had read much and knew what books could teach; but had mingled little in the world, and was deficient in the knowledge which experience must confer. (p.442)

이와 같은 지적이 Milton 'the man'에 대해 갖는 Johnson의 이미지와 흡사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에 비해 drama는 보다 직접적으로 세상사와 관련되고 또 인물들 상호간의

미묘한 감정의 흐름을 다루므로 세상사를 경원하고 책지식만 가득한 Milton은 drama에서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뜻이다. *Preface to Shakespeare*에서 Shakespeare가 그리는 사건과 인물이 실제 삶의 그것과 흡사하다면서 Johnson이 Dryden의 표현을 인용해 “he needed not the spectacles of books to read nature”라고 한 것과 비교하면 Johnson이 Milton과 Shakespeare를 전혀 이질적인, 대극적인 두 천재로 이해함을 알 수 있다.

Milton이 지닌 천재의 속성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그의 시를 논하는 데서도 확인된다. *L'Allegro*와 *Il Penseroso*를 “two noble efforts of imagination”으로 평하면서 Milton의 재능과 성격에 잘 맞는(congenial) 것이라고 하는 반면에 *Lycidas*에 대해선 그 유명한 악평을 가하는 것이다.

Both Mirth and Melancholy are solitary, silent inhabitants of the breast that neither receive nor transmit communication; no mention is therefore made of a philosophical friend or a pleasant companion. The seriousness does not arise from any participation of calamity, nor the gaiety from the pleasures of the bottle. (p. 428)

Johnson의 설명은 명쾌하기 이를 데 없다. *L'Allegro*와 *Il Penseroso*의 경우 Milton의 내적 독백과 같기에, 타인과 교류할 필요가 없기에 가작이라는 것이고, 반면에 *Lycidas*는 친구의 죽음을 애도한답시고 어슬프게 흥내를 내기에 태작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Lycidas*에 대한 평가가 정당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핵심은 소위 sincerity의 문제이다. Johnson이 sincerity의 기준을 내세우는 것은 독자가 작품을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수용의 측면을 편향되게 강조한 것으로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시인이나 작품자체의 자율적 영역을 고려하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게다가 *Lycidas*가 pastoral의 형태를 취하고 mythology를 원용한다는 것이 Johnson이 거부감을 갖는 큰 이유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astoral이 누릴 수 있는 convention을 인정하고 들어가 시인이 환기시키는 아름답고 정겨운 풍치나 자신의 시인됨에 대한 자각 같은 부분을 일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그가 언필칭 내세우는 common reader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Lycidas*비평에서 Johnson의 common life, common reader 강조가, 또 그에 근거한 시인에 대한 선입견이 시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데 장애가 됨을 본다.

*Paradise Lost*¹³⁾에 대한 Johnson의 비평은 여타의 소품들에 대한 것과는 사뭇 다른 바가 있다.

He seems to have been well acquainted with his own genius, and to know what it was that nature had bestowed upon him more bountifully than upon others: the power of displaying the vast, illuminating the splendid, enforcing the awful, darkening the gloomy, and aggravating the dreadful: he therefore chose a subject on which too much could not be said, on which he might tire his fancy without the censure of extravagance. (p. 435)

그 이유는 인용문에 나타나듯이 Milton이 자신의 천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전기부분에서 Johnson이 열거한 결함들이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 주제를 찾았기 때문이다.

13) 이하 P.L로 약함.

인용문은 앞서 *Life of Savage*에서 언급했던 talent의 비유를 떠올리게 하는데 *On the Death of Dr. Robert Levett*에 드러난 이 비유에 대한 Johnson의 신실한 수용의 자세를 생각하면 *P.L*에 대한 찬사가 진정에서 우러나온(whole-hearted) 것임을 알 수 있다. Milton이 찾은 세계는 “worlds where only imagination can travel”이고 전기부분에서 “geometrician”이라고 부정적으로 규정되었던 자질이 망원경으로 시간과 공간을 격해 마음껏 탐색할 수 있는 세계이다. Johnson은 *P.L*에 나타난 상상력의 힘, 도덕적 진지성 그리고 종교적 열정의 위대함을 십분 인정한다.

그러나 geometrician Milton과는 참으로 다르게 “perpetual moralist”인 Johnson은 *P.L*에 대해 human interest의 결여——“original deficiency”라고 함으로써 Milton의 personality로 보아 어쩔 수 없는 결함을 분명히 하면서——를 지적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는다. *P.L*이 “universally and perpetually interesting”하긴 하나 common reader가 그 속에 동참할 여지가 없어서 “natural curiosity or sympathy”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Of the ideas suggested by these awful scenes, from some we recede with reverence,.....and from others we shrink with horror.....

Pleasure and terror are indeed the genuine sources of poetry; but poetical pleasure must be such as human imagination can at least conceive, and poetical terror such as human strength and fortitude may combat. The good and evil of eternity are too ponderous for the wings of wit; the mind sinks under them in passive helplessness, content with calm belief and humble adoration. (p. 438)

첫 단락에서 Johnson은 common reader를 대표하여 자신의 감상을 밝힌다. 그리고는 별 세계의 모습을 여과하지 않고 close-up시키는 것을 지적하는데, 이것은 Johnson이 당대의 소설가들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려낸 것을 탓하는 것과 상통한다고 생각된다. 말하자면 양자 공히 Johnson의 표현으로 튜올립의 줄무늬를 헤는 것에 해당하는 셈인데 여기서 Augustan age의 전통 속에서 훈련되고 그 전통을 굳건히 대표하는 Johnson의 모습을 본다. 세련되고 균형잡히고 일반화하며 산뜻한 형태로 정돈된 진술, 즉 wit에 길들여진 Johnson의 감수성은 Milton을 “admire”할 뿐 “본따야(imitate)” 할 시인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Milton의 시어사용이 “perverse and pedantic principle”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의 시가 독자에게 거역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을 발휘하는 데 대해서는 별다르게 해명하지 못하는 것은 Augustan tradition 내에서 규정된 poetic diction의 범주를 벗어나는 언어사용에 대해서는 둔감했다는 표증의 하나로 여겨진다. 이것은 *Macbeth*에서 Lady Macbeth의 대사 “Come, thick Night.....”를 읽으면서 Johnson이 ‘dun’이란 수식어가 마굿간을 연상시키고 ‘knife’란 낱말이 부엌이나 푸줏간을 연상시키기에 잘못 선택된 시어라고 평한 것¹⁴⁾과 상통되는 한계이다. 그리고 *Lycidas*에 대해 rhyme이 불분명하고 운율이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고 흠잡은 것도 Johnson이 rhymed couplet을 선호하는 Augustan tradition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보여주는 예였다. 시어와 운율에 대한 이러한 경직된 감수성은, 따라서 시인이 가슴 속에 느끼는 바의 움직임이나 결을 그대로 언어로 포착하려는——

14) Rambler 168, p.214 참조.

F.R. Leavis가 시적·창조적 언어사용이라고 부르는¹⁵⁾——시도를 혼란스럽고 기이한 것으로만 여기게 된다.

4.

*Life of Milton*에서의 Johnson은, 약간의 편견이 없지는 않지만 Milton 'the man'에 대한 파악을 작품비평에 일관되게 연결시키고 또 P.L에 대한 평가에서 보듯이 그의 심리적 통찰과 도덕적 판단은 대체로 예리하고 건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Life of Swift*에서는 the man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작품평가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personality이해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확인에서 사소하지만은 않은 실수가 군데군데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Dryden이 Swift에게 했다는 "Cousin Swift, you will never be a poet"라는 말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터에 "this denunciation was the motive of Swift's perpetual malevalence to Dryden"이란 평가가 제값을 다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다른 시인 전에 비해 작품을 분석·평가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처리되는데, 그가 밝히듯이 거의 모든 계층의 독자에게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Gulliver's Travels*를 "a book written in open defiance of truth and generality"라는 한 마디로 맺고 마는 것과 *A Tale of a Tub*를 간략하게나마 칭찬하면서도 Swift의 작품이 아닐 것이라는 암시를 비치면서 굳이 다른 작품들과 떼어서 보려는 것이 두드러진 예다.

따라서 *Life of Swift*에서는 주제인물에 대해 Johnson이 나름대로 이해한 바가 작품평가에 직결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문제로 삼아야 할 것은 작품분석의 구체적 내용이 아니라 Johnson 나름의 이해가 어느 정도 정당한 것이며 만약 부당하다면 그 부당함을 통해 드러나는 Johnson의 인생관, 문학관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Life of Swift*를 *Life of Savage*와 비교해 보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두 인물을 비교할 수 있는 준거를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점과 함께 Johnson이 *Life of Savage*를 personal knowledge에 근거해 주제인물에 대해 sympathy를 갖고 쓴 데 반해서, *Life of Swift*는 secondary knowledge에 근거해서 antipathy를 품고 썼다는 사실이다. 언뜻 생각해 보아도 악한(criminal)이라고 할 수도 있는 Savage에 대한 Johnson의 태도와 Ireland의 은인이고 근검하며 남을 도울 줄 아는 Swift에 대한 태도 사이에는 헤아리기 어려운 간극이 놓여 있음을 느낄 수 있다. Johnson이 덕목으로 꼽는 self-control and examination, charity, endurance 그리고 Christian piety 등을 기준으로 두 인물을 견주어 보면 간극은 더욱 크게 느껴진다. Johnson과는 달리 Savage를 알지 못했던 Boswell이 그의 인물됨을 "profligacy, insolence and ingratitude"로 기술함¹⁶⁾을 고려하면 Savage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는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Swift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논의의 초점은 자연히 Swift가 가열한 풍자작가라는 점에 모아진다. 즉 Johnson이 Swift의 풍자작품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mentality를 그의 전기에서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물론 Savage도 풍자문을 쓰곤 했다는 것을 Johnson이 밝히지만 Savage의 천성이 선하다는 것을 의심치 않기 때문에 문제삼지 않는다. 그렇다면 Johnson

15) F.R. Leavis, p.110.

16) J. Boswell, p.118.

이 Swift의 풍자작품만을 유독 문제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 단서를 Johnson이 1761년 *Idler essays*를 묶어 출판할 때 No. 22를 빼버린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어미와 새끼독수리가 높은 봉우리 위에 앉아 인간들끼리 무자비한 살육을 벌이는 현장을 굽어보면서 인간의 비인간성을 파헤치는 간결한 우화형태의 No. 22는 여러 면에서 Swift적인 풍자, 특히 *Gulliver's Travels*의 제 4부 Yahoo와 Houyhnhnm의 이야기를 상기시킨다. Johnson의 초기작 중에는 이처럼 Swift적인 풍자의 성향을 드러내는 대목이 적지 않다.¹⁷⁾ Johnson이 Swift에 대해 체질적인 반감을 내보이는 이유는 바로 Swift가 떨쳐내고픈 Johnson 자신의 한 부분을 생생하게 되살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Johnson과 Swift 양자는 공히 인간이 놀라울 정도로 쉽게 동물처럼 될 수도 있는 불안정한 정신(*restless mind*)을 지닌 존재로 보았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허상(*illusion*)에 매달리기 쉽기 때문에 그 허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양자의 생각은 같았다. 그러나 Swift가 허상과 허세를 맨살이 드러날 때까지 가혹하게 벗겨버리는 반면에, Johnson은 삶의 근거가 되어야 할 도덕성(*morality*)에 덧붙은,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연막을 훌뜨려 버리고 인간이 기본적인 건전함을 유지하고 갖가지 유혹에 맞서 싸워가는 것을 도와준다.¹⁸⁾ 인간이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는 것과 많은 종류의 고통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에 Johnson은 깊은 *sympathy*를 느꼈다. 이 점에서 Johnson과 Swift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W.J. Bate가 지적하듯 Juvenal의 *Satire X*을 모방한 *Vanity of Human Wishes*가 되다 만 풍자(*satire manqué*)에 머무르고 마는¹⁹⁾ 것도 풍자작가에 필요한 “*divine levity*”²⁰⁾나 “*gay indifference*”²¹⁾를 지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Johnson은 풍자작품을 쓸 수 없을 뿐더러, 더욱 중요하게는 풍자작품을 제대로 수용할 수 없었다. *Gulliver's Travels*가 그가 증시하는 *common reader*에게서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는 사실에 당혹했던지 Johnson은 그 이유를 해명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Swift의 정신이 근원에서부터 타락된 것이라며 그를 *criminal*이라고까지 부른다. Johnson은 *common reader*가 그릇된 흥미에 끌려 *Gulliver's Travels*를 읽었으며 또 그 책을 읽음으로 해서 사악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His judgment was eminently exact both regard to writings and to men. The knowledge of life was indeed his chief attainment; and it is not without some satisfaction that I can produce the suffrage of Savage in favor of human nature, of which he never appeared to entertain such odious ideas as some, who perhaps had neither his judgment nor experience, had published either in ostentation of their sagacity, vindication of their crimes, or gratification of their malice. (p. 625)

17) J.P. Hardy, *Samuel Johnson: A Critical Stud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9), p.104, p.183 참조.

18) Arthur Humphreys, “Samuel Johnson” in *From Dryden to Johnson* (Pelican Guide to English Literature, 1976), p. 414.

19) W.J. Bate, p. 494.

20) T.S. Eliot, “Johnson as Critic and Poet” in *On Poetry and Poets* (New York: Octagon Books, 1975), p. 179.

21) Johnson이 *Life of Pope*에서 Pope에 대해 쓴 용어. p.537.

인용문은 Savage의 글이 삶을 두루 올바르게 파악하고 씌어진 것으로서 morality와 piety를 전파한다고 칭찬하는 대목인데, 흥미있는 것은 그와 대비시키기 위해 몇몇 작가를 거론하지만 주로 Swift를 염두에 둔 걸로 보인다는 점이다. Savage와 Swift를 비교한 이 대목을 보면 Johnson이 결국 도덕교과서 같은, 혹은 적어도 그에 준하는 작품이 아니면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Gulliver's Travels*가 가공의 세계를 그리는 우화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독자도 그 점을 감안해서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Johnson은 common reader를 마치 소학교 교장선생이 학동들을 염려하듯 하는 노파심으로 대하는 것이다.

Johnson이 Swift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려 하는가 하는 것은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것으로 족하다고 본다. 다만 흥미롭게도 다른 시인전과는 달리 Johnson은 *Life of Swift*의 말미에 Swift를 그보다 잘 아는, 즉 Swift에 대해 personal knowledge를 지녔다고 할 수 있는 Dr. Delany의 Swift평을, 그것도 자신의 평가와는 상반되는 것을 덧붙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실은 Johnson이 Swift의 personality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세 편의 전기에서 확인된 바는 주제인물의 personality이해, 즉 전기부분이 작품의 성취도를 판정하는 데, 즉 비평에 상당한 정도의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Savage, Milton 그리고 Swift에 대한 Johnson의 태도는 그 순서대로 인물에 대한 공감도에서 점진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흥미롭게도 그 차이는 Johnson의 비평안이 흐려지는 정도에 반비례한다. Savage의 눈물어린 눈을 마주하고서도 견지되었던 냉정한 눈이 Milton을 거쳐 Swift에 이르러선 색안경을 쓴 듯 흐려진 것이다. *Life of Savage*에서 Johnson은 한 기이한 행적의 삶—사실을 객관적으로 나열하거나 주관적으로 주제인물이나 그 반대쪽에 치우쳐 서술했다면 criminal biography나 melodrama가 되었을—을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전기작품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그 성공은 Johnson의 문학적 특장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common reader에 대한 깊은 배려, common sense에 대한 굳건한 신뢰, 삶과 사물을 인본적(humanistic), 도덕적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자세 그리고 삶과 문학을 밀착시켜 이해하려는 태도 등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한 인간의 삶을 전기로 형상화하는 작업과 시인의 삶을 통해 그의 작품을 비평하는 작업은 성격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Milton의 삶과 작품을 수미일관하게 파악해 그 천재의 성격을 도출해내는 데에는 경탄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게도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Lives of the Poets*를 특출한 성취로 이끄는 특성이었다. 그런데 common life, common reader, common sense에 입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그러한 특성이 문학에 관한 논의를 common sense의 수준에서, 아니면 적어도 독자의 반응과 독자교육을 고려한 차원²²⁾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다.

The emphasis upon, the care for, the common style and the common rules, which Johnson

22) W.R. Keast는 Johnson이 독자가 문학에 선행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reader-oriented된 자세를 지녔다고 함. "The Thoretical Foundations of Johnson's Criticism" in *Critics and Criticism*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52) pp.171-3.

exhibits, and which make him sometimes appear to measure great genius by the standards suitable only to smaller minds, may lead to an exaggeration of the value of pedestrian poetry which conforms, over that of work of individual genius which is less law-abiding.²³⁾

Johnson이 Congreve의 *Mourning Bride*의 일절을 the “most poetical paragraph” in the “whole mass of English poetry”²⁴⁾로 격찬하고 Shakespeare나 Milton을 놀라운 천재로 인정하면서도 본따기(imitate)에는 위협한 예들로 보았다는 사실은 인용문에 표출된 T.S. Eliot의 생각이 상당한 근거를 가짐을 보여준다. 이 문제는 또한 Johnson이 가진 감수성에 어떤 한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Congreve가 Augustan age와 Johnson의 규범적 이상이라 할 수 있는 ‘wit’를 더없이 탁월하게 성취했다고 격찬하고, Shakespeare의 언어사용이나 Milton의 시어, 운율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는 데서 Augustan tradition에 굳게 뿌리박은 Johnson의 감수성을 볼 수 있다. 더구나 그 감수성은, Swift의 예에서 보듯이 작품이 도덕적 견지에서 만족스럽지 않을 때 실패작으로 치부하는 moralistic fallacy의 경향을 가진 것으로도 보인다.

세 편의 전기를 통해 Johnson문학관의 특유의 강점이 또 일정한 한계가 되기도 함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Johnson의 감수성은, T.S. Eliot가 구별하듯이 미약하다거나 결함있는(defective) 것이어서 한계를 갖는다고 보다는 그 시대가 합의한 방향으로 세련되고 전문화된 나머지 그 방향 이외의 것에 대해 둔감했다는 의미에서 제한된(limited), 그러기에 또 매우 적극적인(positive) 성격의 감수성이었다.²⁵⁾ 그리고 간과해선 안될 것은 Johnson의 문학관이 시대적 경계를 뛰어넘어 문학의 본질적인 특성과 영원한 기준을 포착하고 그의 생동하는 감수성이 이론이나 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작품에 정직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이다. Johnson의 비평이 때때로 부당함과 부정확함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을 읽는 이유가, C.B. Tinker의 적절한 표현대로 그가 “who can always be read with profit even when we dissent from the view set forth”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Bibliography

1. Primary Source

Samuel Johnson: Selected Poetry and Prose. eds., Frank Brady and W.K. Wimsatt.
London: The Univ. of California Press, 1977.

2. Secondary Sources

Bate, Walter Jackson. *Samuel Johnson.* London: Hogarth Press, 1984.

Boswell, James. *Life of Johnson.* ed., R.W. Chapman. Oxford: Oxford Univ. Press,
1983.

Damrosch, Leopold. *The Uses of Johnson's Criticism.* Charlottesville, Va., 1976.

Eliot, T.S. *On Poetry and Poets.* 1943; rpt. New York: Octagon Books, 1975.

23) T.S. Eliot, p. 165.

24) Jean H. Hagstrum, *Samuel Johnson's Literary Criticism*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67), p. 162에서 재인용.

25) T.S. Eliot, pp. 166-8 참조.

26) C.B. Tinker,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Johnson's Criticism”, p. 169에서 재인용.

- Ford, Boris, ed. *From Dryden to Johnso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6.
- Greene, Donald J., ed. *Samuel Johnson: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65.
- Hagstrum, Jean H. *Samuel Johnson's Literary Criticism*.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67.
- Hardy, J.P. *Samuel Johnson: A Critical Stud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9.
- Leavis, F.R. *The Common Pursuit*. 1952; rpt. New York: New York Univ. Press, 1964.
- Raleigh, Walter. *Six Essays on Johnson*. Oxford: Clarendon Press, 1910.
- Vesterman, William. *The Stylistic Life of Samuel Johnson*. New Jersey: Rutgers Univ. Press, 1977.
- Fix, Stephen. "Johnson on Milton's Life" *Modern Philology* (February, 1984), pp. 244-64.
- Keast, W.R.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Johnson's Criticism" in *Critics and Criticism*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52) ed., by R.S. Crane.